

제 2 차 세계대전 후,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(GHQ)에 의해 접수되었고, 1945 년에 오키나와에서 사망한 폴리처상 수상자인 미국인 저널리스트의 이름을 따 어니 파일(Ernie Pyle) 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이 시기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니혼 극장과 데이코쿠 극장 등의 무대를 빌려 공연을 이어갔습니다. 1955 년 고바야시 이치조는 흥행 시설의 운영권을 되찾았고, 극장은 본래 이름인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